

“해수부 해체 반대” 들끓는 민심

전남, 여수엑스포 준비·‘해양 경영 계획’ 차질 우려 부산·인천 등 시민단체 300만 서명운동·궐기대회

대통령직 인수위가 해양수산부 폐지를 기정사실화 하자 전남도를 비롯한 부산·경남·인천 등 전국 해안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남은 2012 여수 엑스포 준비는 물론, 해양 자원의 개발과 산업화를 통한 동북아 해양경영의 중심지 실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터여서 주무 부처의 폐지가 이들

중요사업을 약화시키거나 차질을 빚게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하고 있다.
지난 1996년 출범한 해수부는 2016년 5대 해양강국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신해양 산업을 개척해왔으며, 여수엑스포 유치 및 추진에 주무 부처로서 제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부산과 광양항 배후단지 및

물류단지 개발 등 한국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 부서로 인식되고 있다.
또, 해수부가 폐지될 경우 불과 4년 밖에 남지 않은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제박람회기구(BIE)와의 협조관계 유지와 약속된 사업 이행 등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입물동량의 99.7%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물류전쟁을 극복하고 해양영토관리와 보전, 해저 자원 개발, 해양관광객제 산업의 활성화 등의 계획을 통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수부 존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지역 시민단체, 학계, 정치권 등으로 거세게 번지고 있다.
14일 신당 김성곤 의원(여수 갑) 등 신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 존치를 주장하는 한편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김 의원 등은 앞으로 해수부 폐지 반대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의 서명(14일 현재 80명)을 최대한 많이 받고,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요구해오더라도 해수부 폐지에 동의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앞서 여수·부산·인천·마산·울산 등 전국의 해안도시 시민단체들도 최근 ‘해수부 해체저지 범국민연대’를 결성하는 한편 100만인 서명운동을 300만인 서명운동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들은 또 해수부 존속을 위해 이명박 당선인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해수부 해체 반대 궐기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 국회연구단체인 ‘국회바다포럼’도 최근 “인수위의 시각은 지나친 단견이며 정부조직 개편은 국가비전과 전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해수부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완도 탱크’ 최경주 소니오픈 우승

상금 중 3억원 이전 화재 유가족들에 기부

최경주가 14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골프장에서 끝난 미국프로골프투어 소니오픈에서 4라운드 합계 14언더파 266타로 우승 한 후 우승컵을 안고 팬들을 향해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최경주는 이번대회 우승으로 PGA 투어 통산 7승을 올리며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의 대항마로 등장했다.
한편 최경주는 이날 경기도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 유족들에게 최경주 재단을 통해 3억원의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경주는 이날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대회에서 우승한 뒤 “유가족들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고인들의 명복을 빌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지방 ‘광역경제권’ 설정 대운하 100% 민자사업”

이명박 당선인 회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지방에 광역경제권을 설정하고 수도권 못지 않는 인프라를 지원, 수도권보다 지방에 투자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지방 경제여건을 수도권보다 유리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특정지역(수도권)을 규제해서 다른 지역이 도망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당선인은 또 “변화는 정부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공직 사회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야 한다. 중복

적인 기능을 과감하게 통합하고 나누어진 기능을 융합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게 돌려주고, 지방이 맡는 것이 좋은 일들은 지방이 맡도록 해 줘야 한다”고 정부 권한 이양방향을 밝혔다.
경제정책과 관련, 이 당선인은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며, 짧은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경제를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7% 성장을 달성 목표와 관련, “금년에 7%를 달성할 수 없지만 6%를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은 종합부동산세 과표기준의 상향 조정 문제와 관련, “중부세는 부동산 경기를 파악해 가면서 금년 하반기에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총리 인선 및 새 정부

조각과 관련, “정치적 고려나 총선을 염두에 두는 일은 없을 것이며, 오로지 일 자체를 위해 인선이 되고 임명될 것”이라면서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내각에 입각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차관의 경우 전문직이 임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 “북핵을 포기시키는 데 도움이거나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면서 “이 다음에 만난다면 장소는 우리 쪽에서 만나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대운하 공약과 관련, “대운하 사업은 100% 민자사업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민간의 손에 있으며 정부로서는 스케줄이 없다”면서 “정부는 민간 투자자들이 검토해 제안이 들어올 때 사업 타당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 등 완벽한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 신년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타르 피해 어민들 특별법 제정 촉구 전남 총 1천442t 수거

전남지역 타르 피해 양식 어민들은 14일 현실적인 피해 배상과 즉각적인 지원을 위한 ‘원유유출사고 피해자 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지역 양식어민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태안 원유유출사고 피해자 지원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즉각적인 보상을 위해 이의 제정이 시급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로 인한 전남 해안 어장에 대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에 따르면 14일까지 타르로 인한 피해 어장은 신안·무안·영광·함평·진도 등 5개 시·군에 2만2천261ha(709건)로 전남과 동일해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이날도 3천500명의 인력을 투입(연인원 5만8천857명)해 33t의 타르를 수거, 지금까지 총 1천442t의 타르를 제거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자원봉사자를 투입하기 어려운 영광과 신안 무인도 등 섬 지역에 군부대와 경찰 병력 등을 적극 활용해 타르 제거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섬 지역에는 군 병력과 경찰병력을 집중 투입해 타르를 닦아내는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희중기자 chae@

이건희 회장 집무실 압수수색

삼성특검 비자금 수사 대상자들이 상대로 주거지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검팀이 검찰의 기초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상당량의 범죄 단서를 확보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한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통해 그들 전반의 증거인멸 시도를 차단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삼성의 심장부로 지목돼 온 그룹 구조조정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곧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2명의 과경검사와 특별수사관 수십명을 이 장소들로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메모지나 서신,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그룹 경영관련 문건 등 범죄 정황과 관련지를 만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우일학원 장학 67년 역사인 전통
남부대학교
www.nabuniv.ac.kr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www.marathon.kwangju.co.kr

주는 즐거움, 받는 기쁨
금강제화상품권
www.kumkang.com
1588-8877